

보도시점 (온라인) 2026. 6. 16.(화) 12:00
(지 면) 2026. 6. 17.(수) 조간

1박 이상 섬 여행하면,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

- 6월 17일부터 30일까지 '2026년 섬 방문의 해'에서 사전 신청
- 7월~8월 섬 여행객 대상으로 여행비 지원, 10월 여행객 대상 추가 지원 예정

행정안전부(장관 윤호중)는 2026년 섬 방문의 해를 맞아 국민의 섬 여행을 장려하고 섬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오는 7~8월 중 섬을 방문하는 여행객에게 최대 10만 원의 여행 경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.

이번 사업은 섬 관광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실제 방문으로 연결하고, 여름 휴가철 섬 지역 관광수요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했다. 지원 대상은 육지와 연결되지 않아 여객선을 이용해야 하는 섬을 방문하는 여행객(팀 단위 지원)이다. 오는 7월부터 8월까지 1박 2일 이상 섬 여행을 할 경우 여행 경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.

>> 1박 2일 이상 섬 여행 시 최대 10만 원 환급, 6월 17일부터 온라인 접수

지원 항목은 숙박비, 식비, 여객선 운임, 식료품 구매비 등 섬 지역 내에서 지출한 여행 경비 전반이며, 신청자는 왕복 승선권과 영수증 등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. 지원금은 심사를 거쳐 최대 10만 원까지 지급된다.

여행비 지원 신청은 6월 17일(수) 오전 10시부터 6월 30일(화) 24시까지 '2026년 섬 방문의 해' 공식 누리집(<https://www.visitisland.kr>)을 통해 가능하다. 신청 인원이 지원 규모를 초과하면 추첨을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.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.

>> 전남 섬 반값여행, 한국관광공사 숙박세일페스타 등도 연계 추진

특히, 이번 사업은 오는 8월 29일(토)부터 시작되는 전라남도의 ‘섬 반값 여행’과 9월 중 예정된 한국관광공사의 ‘숙박세일페스타’ 등과 연계해 내실 있게 추진된다. 이에 따라 여행객들은 다양한 할인·지원 혜택을 함께 활용해 보다 부담 없이 섬 여행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행정안전부는 여름 휴가철 여행비 지원(1차)에 이어, 오는 10월에는 ‘2026여수세계섬박람회’와 연계해 추가 여행비 지원(2차)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. 이를 통해 섬 방문의 해 분위기를 가을까지 이어가고, 섬 관광 수요를 연중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다.

>> 인증 참여 행사 및 특산품 기획전 개최, 섬 지역 소비 활성화 유도

또한, 전국 88곳이 지정되어 있는 ‘찾아가고 싶은 섬’ 방문 인증 참여 행사를 비롯해 8~9월에는 ‘1인 1섬 갖기’, 어린이 동반 가족 여행객을 대상으로 한 티니핑 프로그램, 추석맞이 섬 특산품 기획전 등 참여형 프로그램을 순차적으로 운영한다. 이를 통해 섬 방문을 확대하고 섬 지역의 소비 활성화에도 기여할 계획이다.

진명기 행정안전부 자치혁신실장은 “섬은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고유한 문화, 다양한 먹거리를 간직한 우리나라의 소중한 자산”이라며 “이번 여행비 지원을 계기로 더 많은 국민께서 섬을 찾고 머물며 섬의 매력을 직접 경험하시길 바란다”라고 말했다.

이어 “앞으로도 정부는 섬 관광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겠다”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자치혁신실 균형발전진흥과	책임자	과 장	박유정 (044-205-3530)
		담당자	주무관	홍석록 (044-205-3521)